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집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1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 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리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3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해 전쟁에 나가라! 4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서 너희의 위치를 지키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5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패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6 발 빠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프라테스 강 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7 나일 강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8 이집트가 나일 강처럼 일어나고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9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와 붓 사람들아!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아! 10 그날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날이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삼켜서 배가 부르며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다. 이는 유프라테스 강 가 북쪽 땅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가 희생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11 이집트의 처녀 딸아!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하라. 네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쓰나 네게는 치유가 없다. 12 네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네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에 걸려 넘어지고 그들 둘 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오늘 본문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열방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이집트는 단단히 무장하고 엄청난 기세로 싸움에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참패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는 힘을 잃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10절).

1. 여호야김 4년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기세등등하던 이집트 군대가 패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5-6절)
2. 이집트 군대가 패배한 날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날인가요? (10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약을 쓰는 것이 '헛되이 쓴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1절)

• 닦아가기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능력을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날을 세운 창과 대적하는 군대처럼 하나님 없이 하는 나의 헛된 노력은 무엇인가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3장 (어둔 죄악 길에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집트에 임박한 멸망** 1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려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므딤에서 선언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네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네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15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16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17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18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다불 같고 바다 결의 같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19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놉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21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22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23 여호와와 말이다. 숲이 뻑뻑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 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24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5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26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 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이다."

· **야곱의 구원을 말씀하심**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28 여호와와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묵상하기

유다 백성의 눈에 이집트는 자신들을 구해줄 만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대적할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평화와 안정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이집트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이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는 풍요로웠고(20절)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21절). 그럼에도 무너진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15절)입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가 없음을 깨달을 것이고, 이집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18절)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하고 완벽한 평안과 도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4 적용하기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권력, 돈, 인기,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나도 나의 현재와 미래를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에 걸고 있지 않나요?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도, 한순간에 쓸모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안정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요?
- ②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허무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그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세상에는 제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를 의지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블레셋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1 바르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3 준마들의 말 발굽 소리, 전차의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4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5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의 남은 사람들아, 네가 언제까지 네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 블레셋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

6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7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3 목상하기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던 이들의 최후를 봅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섬기던 우상을 부르고(5절), 뒤늦게 칼을 멈추어 달라며 하나님을 부르지만(6절)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으세요.

4 적용하기

현실에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녀들이 오히려 불이익과 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었듯 악한 세력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더욱 우직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잘사는 것처럼 보여 믿음이 흔들리던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 ② 죄악과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늘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품에 머무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모압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1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2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 버리자.' 맞덴아,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 갈 것이다. 3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4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5 루히트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6 도망가라. 네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덩불처럼 되라. 7 네 업적과 재산을 네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8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9 모압에 날개를 달아 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10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 **수치를 당하게 될 모압** 11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의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12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 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13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뱀엘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15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16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17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18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네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네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19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는 가에서 선포하라. 21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에, 야사예, 메바앗에, 22 디본에, 느보에, 벤디불라다임에, 23 기라다임에, 뱀가물에, 뱀므온에, 24 그리웃에, 보스라에,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25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3 묵상하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친척 사이였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이 멸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안전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11절)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지만(7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풍족함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13절). 이것이 평안했던 그 땅이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조건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산, 좋은 인맥 등 의지할 무언가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못합니다. 고난 없이 마냥 편하게 즐기며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요즘 아무런 고민도 걱정도 없는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그럴수록 나의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②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한 적은 없나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계획한 일이 성공해 주변의 칭찬이 쏟아지면 우쭐거렸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제 입술이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은 풍요롭고 안정된 일상은 언제고 궁핍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심

26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 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7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 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네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네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28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네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등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29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30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량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 모압의 멸망에 대한 탄식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32 십마의 포도나무야, 야셀을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네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네 여름 열매와 네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33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34 헤스본의 외치는 소리로부터 엘르알레까지 그리고 야하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야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니므림 물까지도 말라 버렸기 때문이다. 35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치솟는 교만을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는커녕 조롱하며 비웃었고(27절), 풍요롭고 안전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를 자랑했습니다(30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들이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우월감, 내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4 적용하기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과시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과시하고, 인맥이 넓은 사람은 탄탄한 인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모든 시도와 행위가 다 교만임을 잊지 마세요.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요즘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말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나를 자랑하나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나요?
- ②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 없으면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나에게도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교만임을 알았다면, 이 교만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모압의 몰락

36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 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7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베 옷을 걸치고 있다. 38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39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40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급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41 크리웃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42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43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덧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44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덧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 멸망이 선포됨

45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혼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46 모압아,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네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네 딸들이 포로가 됐다. 47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3 묵상하기

물질지상주의에 취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압은 결국 그릇이 산산조각 나듯 깨져버릴 것입니다(38절).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심판 끝에 작은 소망을 남겨두십니다(47절).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이 이방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음으로 나를, 그리고 아직 진리를 모르는 내 주위의 누군가를 위해 일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이제 나는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 돌아와야 할 누군가를 위해 울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 받는 그 순간만큼은 고통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크기에만 집중하면 벌받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프고 고되도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고되고 아픈 시간을 지날 때, 지금의 아픔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 ②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전도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깨진 그릇처럼 부서지더라도 그것이 저를 위한 시간임을 믿으며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암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1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는냐? 2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랍바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 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3 "헤스본아,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굶은베 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4 네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네 흐르는 골짜기를 왜 네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네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라고 말한다." 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6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